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실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보이지 않는 '참나' 불성을 믿고 살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았지만 그 한 번 모여 앉았다가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를 했다 합지라도 그 한마디에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 한마디에 자꾸 말을 붙여서 붙이지 말고, 항상 좀처럼 공을 만들듯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합쳐서 그저 툭툭 뭉치면은 살기가 좀 수월하고 하는 일도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세요.

사람이 어떡하면 잘 되나. 어떡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해서 붙여 놓지 마시고요. 벌려 놓으면 벌려 놓은 대로 일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공법이 돼서 그래요. 뭐든지 공법으로 사세요. **오늘은 어디 어디서 오셨단가요?** 우리가 그냥 미끈하게 말만 잘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남이 하는 줄 모르게 구석구석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부예요. 발 한 짝 떼 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주 하기 쉬운 것도 볼 수 해놓고 하기 쉽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진짜 자기를 믿는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자기 모습은 물질적인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인데, 불성인데 어째서 그걸 믿지 않고 믿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으니까, 믿지 않으시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죠. 언제 나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그 쪽으로 한데 합쳐져야 견성인거예요. 통신이 된 거구요. 이게 겹쳐지지 않는다면 통신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게 벌어져서 일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책만 보고 염불을 입으면 외우는 게 공부 아니고 항상 자기 생각이 부풀려야 되죠.

통신 하려면 합쳐라

자기가 없이 살아야. 우리 스님네들은요. 자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 자기라고 치질 않는 거죠. 그래야 보이지 않는 자기한테 다 맡겨도 탐이 나지 않죠. 예전에 부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율령갈망 이유를 자꾸 벌려 놓지 말라. 이유를 벌려 놓으면 너희 살기가 어렵고 일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벌리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만날 식구들이 많고 또 일거리가 많다고 해서 아주 답답하게 생각지 말고 열 명이 있어도 한 명만 있는 것이다. 한 명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기가 쉽고 가기도 빠르고 오기도 빠르고 그런 것이니라."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식구가 수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있는 대로 무엇을 해도 얼마나 복잡할 거예요. **24시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수 없이 바뀌면서 이게 됐다 저게 됐다가 엄마 됐다가 누나가 됐다가 딸이 됐다가 며느리가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이렇게 수없이 바뀌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면서 해 놓은 일을 생각하고 감추질 못한다면 수없이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믿고 잘 하는 사람은 심안으로 믿는 것이고, 때 때워서 정말이지 믿는다는 소리 없이 믿는 사람들은 법안으로 믿게 되고, 또 그보다

도 내가 있다 없다 소리도 없고, 남들이 있다 없다 소리도 없고, 세상이 있다 없다 소리도 없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은 불안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도들 중에도 어떤 집들은 영망이 돼서, 그냥 영망으로 빠져든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대손손이 내려가면서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딱해요. 그 한 생각이 어떤 공처럼 우그릴 건데, 그냥 그렇게 해놓곤 벌려 놓고 있잖아요. 그 벌려 놓는 것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조상도 계시고, 식구들도 수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그럼 그런 생각 안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겠지만은 다 공으로써 공생으로 살 거거든요. 모두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힘이 없이 하고 산다 이런 소립니다. **일일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떻게 그걸 다 답변을 하고 벌려 놓고, 답변을 할 수가 있나? 참 이거는 말로 할 수도 없고 말로 배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기가 어렵겠지만 말을 많이 벌리지 말라. 이런 건 우그러서 적게 만들라 이거죠. 한 줄밖에 없는 거를 두 줄 세 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리고 단순히 우리 사는 것이 그냥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지 어디 달리 무슨 잘못 돼서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본래 원 공법은 그렇단 말입니다. 잘못되고 잘 되고가 없어요. 그러니 그거를 능중하게 아신다면은 그렇게 과하게 사실 필요가 없죠.****

▲질문자: 스님! 항상 저희 중생들에게 샘플 같은 법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질문보다 스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날' 목욕탕 운영으로 인해 10억의 부도로 저희 가정은 사람으로써 생각조차 힘들 정도의 어려움으로 허덕일 때 이 법을 만났습니다. 이 법을 알기 이전 10억이란 부도를 맞고 길도 없는 길을 헤매며 오직 죽음만이 해결의 길이라 생각하였고, 그때 저는 삶에 의욕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사람과 돈에 3년을 시달려온 지라 그때 동기뿐이었습니다. 저의 남편도 경찰 공무원이라 부도 건으로 공직생활도 힘들게 되었고 가족의 하루살이는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 법을 만난 이후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울산지원을 다녔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이 어디 사람 모습이었겠습니까? 사람과 돈에 3년을 시달리면서 마음은 자포자기와 독기만 서려 있는 그 마음으로 그래도 지원에 나가 시간을 보내면 그 순간이라도 덜 사람에게 시달리니 지원이 저의 피신처였지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지원의 세 분 스님께 감사 드리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세 분 스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지원 도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게 딱 한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땐 단 하루만 그 소원을 풀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

어졌답니다. 그때 그 소원은 우리 가족이 웃으면서 간장 한 종지 놓고 편안하게 밥 한끼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 놓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전화도 마음껏 받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98년도 7월에 구법당에서 부도 건이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1년 후 저희 남편은 경의로 신급까지 하게 되었고, 또 한번의 진급을 위하여 울산 경찰청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듯이 전국에 굶이던 곳, 부직이면**

▲스님: 따지고 보면 내가 감사하다고 해야 할텐데,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해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즐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한 생각을 잘 내서 그저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또 그 재산이 자녀들한테 잘 써지고 꾸러 다니지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질문자:** 저는 한때의 아상과 탐, 진, 치의 때 때문에 거칠고 못되게 살다가 무슨 복을 지었는지 스님을 만났고 지금은

서면 원상태로 되어 버려 지금은 주인공 공부는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담당하게 지냅니다. 이렇게 담당하게 지내면서 주인공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원인처까지 닿아서 통할 정도로 열심히 관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진짜 놓고 가는 게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대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단 전후회를 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단전후회를 해서 내버리지 않고 그냥 답는다면 그게 머리 꼭대기로나 또는 장대기로나 아래로나 그냥 그 바람 중에 문이 돼 가지고는 그 사람의 몸통이 살게끔 해주질 않아요. 그래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집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여기 다니면서 공부해서 관찰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위에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것도 내가 관하면서 항상 자기를 믿어야지,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가지 누가 해줄까? 딴 사람이 해 줄 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자기 주인공에 매달리세요. 너무나 해결 할 수 있다. 이 모습하고 정신계가 들이 아닌 까닭에 너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조금 조금 없어져 든지 많이 없어져서 그것은 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뭉쳐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가장자리에는, 예를 들어서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 영 자체가 모두 둘러 있기 때문에 그 안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게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없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야 만이 다 제치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질문자: 어느 날 법당에 앉아 있으니 상단에 계신 부처님께서 생명이 있어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통곡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반야심경>을 읽는 도중 '들이 아니라 하냐' 하면서 가슴 깊이 하나임을 느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되어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그 또한 한 순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임을 느낄 때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 하나로 느끼는 마음은 순간이고 돌로 보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스님: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하나가 될 때는 부처님과 자기와 돌이 아니게끔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잠시 잠깐이지만 만리를 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삼세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시절에 삼세를 다 뛰어 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귀한 문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수 있고 한 것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돌아니게 될 때 성불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 고귀한 문 아닌 문을 여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자: 스님께서는 "모두를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이라도 한마음으로 안아 나오면 들어 다시 내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천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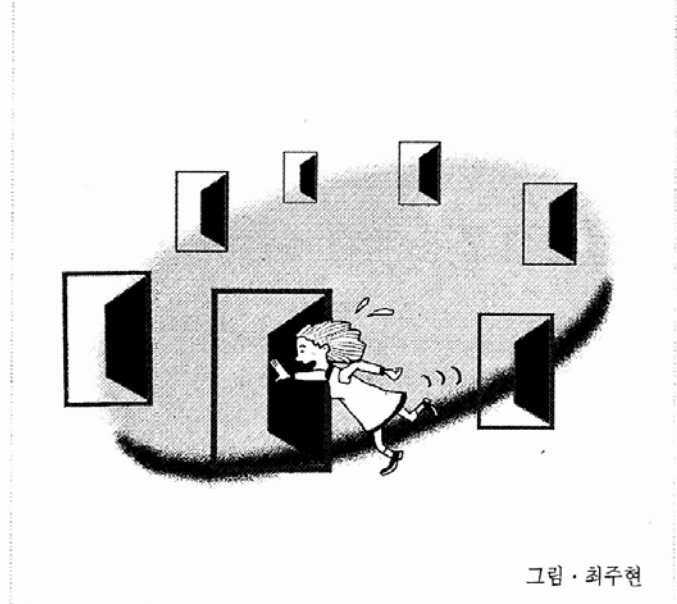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책보고 염불하는 게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

자기를 비우고 살아야 탈없이 살 수 있다

부적으로 해결책을 찾던 저도 이제 열심히 주인공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도 평범한 가정이 되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웃음으로 그때의 소원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의 부도 불안이 남아 장사는 피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남편은 아들과 함께 다시 재기를 해 보겠다고 건강보조 식품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감로의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국이 어려워 과거의 것처럼 괴로움을 받는 분들도 이 법을 만나 다시 희망이 있는 세상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제 막 깊이 한마음만 간직하여 할 말 사람다운 길을 걸어 보려고 관하고 또 관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지원은 대작 불사가 일부 끝나고 저희는 큰 법당에서 공부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어라 감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남은 마지막 불사를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공부를 제 인생 목표로 삼고 스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인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각대로 되는 법

약 3년 전부터인가 제 몸 안에 에너지가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머리 꼭대기 위에 한 점으로 뭉쳐서서 굉장한 압력과 힘을 가지고 제 머리에 늘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관을 하게 되면 관을 하며 내는 생각이나 내용이 머리 꼭대기 에너지 자리에 같이 뭉쳐져서 관이 쉽게 안되고 힘들어서 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봉에 고장이 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한 좋지 않은 의식들이 올라올 때 보면 그 근원지점이 바로 그 뭉쳐진 에너지 위치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 정신, 두뇌, 정서 등을 장애물 버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관을 해 왔습니다만 해결되었나 하고 돌아

들어 다시 내 놓는다면'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네. 이 마음이란 것은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거를,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그렇습니다. 몸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다 들어간다면 몸도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선지식들이 바쁘면은 "너 좀 이리 와." 이렇게 했지만 몸으로 가서 부른 게 아닙니다. "너 좀 이리 와." 하는 대도 자기가 가서 그 몸에 들어가니까 오고 싶죠. 오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바로 올 때는 거죠. 그렇게 만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생각하죠. 아주 알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정집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불쌍하게 살았고 어떻게 착하게 살았고 그런 문제들을 다 알게 되요. 이 마음공부 하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가 돼 주는 거죠. 하나가 돼주는 것이 바로 그때 재생처로 나가게 해라. 어린애가 죽었다면 전자에도 과거에도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럴 때는 재생처로 보내라 이렇게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 한마디죠.**

심안 · 법안 · 불안의 도리

"재생처로 보내야 된다"하고 말 한마디 할 때 그게 그냥 되는 것이고 노인네가 고생하고 살았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눈물을 항상 머금고 산 분이다. 이렇게 생각 할 때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자기와 돌이 아니죠. 그럴 때에 천도가 된다, 재생이 된다면 그렇게 되죠. 모습도 살도 권리도 다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게 말로 이렇게 하나씩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면 쉬운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주 입증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러는 거를 자기가 믿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믿어 줄까? **▲질문자:** 제 아이가 작년에 입시시험에 실패하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고3 입시 지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저녁 아이를 통학시키며 나름대로 체크를 하면서도 가급적 입시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욕심 때문에 애처로운 마음이 들면서도 아이의 부족함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 원망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부족한 모습만 제 눈에 비쳐졌기에 제 마음은 짜증과 불만에 젖어 입시 공부하는 아들과 하나가 되어 주지 못하고 말로써만 아버지 노릇하고 말로써만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어리석게도 그것이 집착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랑과 관심으로 포장해서 아이에게 다그치며 가르치려 했기에 마음의 상처만 남기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부모 사랑은 집착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새 기대하고 욕심내며 희망사항이 하나 둘 늘고 또 실망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게 하는 것도 못되게 하는 것도 근본자리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묵묵히 믿고 믿는 것이 최선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까지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자식 문제는 실천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또 5개월 후엔 입시를 치루어야 하는데 아버지로써 자식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만**

20면으로 계속

가복은 안목을 닦고 고달픈 현실에 함께 뛰어드는 사람만이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삶은 고통이 아니다** AS신 288쪽 값 6,000원 **이시아**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